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12.8.(금) 제23-132호

◆ **[Focus]** 트럼프 정부 책사가 밝힌 America First 2.0 무역정책 비전

◆ **[What's News]**

- (수출통제) 하원 외교위, 美 산업안보국 기관 검토 보고서 발표
- (탄소세) 美 의회, 청정경쟁법(Clean Competition Act) 재발의
- (철강) 美 철강 업계, 온실가스 배출 측정에 제품별 접근 방식 요구
- (공급망) 파나마 운하 수위 저하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전망

◆ **[Top Headlines]**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

FOCUS

[무역정책] 트럼프 정부 책사가 밝힌 America First 2.0 무역정책 비전

1. 트럼프 무역정책 2.0 향배에 시선 집중

□ **트럼프 전 대통령, '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 유력시**

- 트럼프는 지난 8월 선거 참모 회동에서 '무역 중심'(Trade-focus) 의제를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을 의사를 밝힘.

□ **트럼프 '미국 우선주의'(America First) 무역정책 2.0에 관심 집중**

- 트럼프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무역정책의 대표 슬로건으로 "Tax China to Build up America" 제안
 - △10% 보편 관세(Universal Tariff) △중국 최혜국 대우 중단 △중국 외주 기업의 조달 기회 박탈 등 고강도 대중 디커플링 예고
- '트럼프 상호무역법'(Trump Reciprocal Trade Act) 입법 공약
 - '눈에는 눈, 이에는 이' 원칙에 따라 외국이 미국산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고관세 부과 방침

□ **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책사들, 트럼프 2기 무역정책 청사진 제안**

-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(USTR)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보좌관 등은 저술을 통해 한층 강력한 무역정책 예고

2. 라이트하이저 전 USTR, “자유무역 도그마와 헤어질 결심”

□ **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올해 6월 저서 ‘No Trade is Free’ 출간**

- 라이트하이저는 통상 법률가로서 트럼프 무역정책을 입안하고 미중 무역 협상을 진두지휘했으며, 트럼프 재집권 시 중용될 것으로 예측
-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동 저서를 추천하며 라이트하이저의 무역정책 전문성과 비전에 전폭적인 신뢰 표명

□ **중국과 ‘전략적 디커플링’을 주장하는 등 고강도 탈 중국 정책 시사**

- 미·중 무역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세를 인상하거나, 중국의 ‘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’(PNTR)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 주장
- 외국인투자위원회(CSIUS)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투자를 금지하고, 동시에 미국의 대중 투자를 감독하는 기구 신설 요구
- 대통령이 대중 투자 건을 임의로 중지하는 권한을 수립하는 입법 촉구
- 틱톡 등 중국 기술·미디어 기업의 미국 진출 금지, 중국 기관의 미국 언론 광고 구매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공여 등 금지

□ **동맹·우방국과 무역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주장**

- 미국과 FTA 체결국들도 부당 보조금, 환율 조작,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,
- 우방국의 산업 육성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무역 조치 필요성 역설

□ **WTO 등 다자 경제 협력 체제 불신임,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 개혁 요구**

- 미국이 직면한 무역 문제를 WTO 등 다자 체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, 미국의 주권적 무역정책 추진을 옹호

- 그 밖에 탄소 국경조정 제도(CBAM) 도입을 찬성하고, 800달러 미만 미소 수입 관세 면제(De Minimis Tax Exemption) 제도 폐지 요구

3. 나바로 전 보좌관, 트럼프식 보호무역에 이론적 토대 제공

- 나바로는 헤리티지 재단이 출간한 '보수 집권을 위한 2025년 정책 의제 보고서'(23.4월)에서 '무역정책' 분과 저술에 참여

-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내 대표적인 대중 매파 성향 인사로 분류됐으며, 학자 출신답게 트럼프 무역정책 논리 설화에 앞장

-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WTO 최혜국(MFN) 대우 제도 문제 시정 주장

- 미국은 WTO의 비상호 관세 체제로 불균형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
 - 품목·관세율 등 기준에서, 미국이 MFN 관세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 보고

< WTO MFN 관세 불균형 현황 >

132개국 표본	외국이 높은 관세율 부과 경우	미국이 높은 관세율 부과 경우	미국과 외국이 같은 관세율 부과
품목 수(HS 코드 6단위)	467,015개	141,736개	87,319개
품목 비중(HS 코드 6단위)	67%	20%	13%
관세율 격차(평균)	12.3%	8.7%	0.0%

[자료] 헤리티지 재단 / UNCTAD

- 국제 관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필요
 - '미국 상호무역법'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외국과 관세 인하를 협상하고, 협상 실패 시 해당국 대상 관세 인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수립
 - 이로써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가 583억~636억 달러 감소 분석
 - 대미 무역적자가 크고 평균 관세율 격차가 큰 중국, 인도, EU, 태국, 대만, 베트남 등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분석
- 또한,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이 현저한 교역 상대국(일본 등)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

□ 중국의 중상주의적, 비시장 관행에 맞서 강경한 대응 주문

- 트럼프 정부 당시 체결했던 미·중 1단계 무역 협정을 실패로 규정하고, 차기 정부에서 중국과 추가 협상 무용론을 주장
- 다음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, 상품, 기술 시장에서 중국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무역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을 권고
 - (1) 모든 중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 인상 (단, 전략 물자 수급 고려 필요)
 - (2) 중국으로부터 미국기업 회귀 지원을 위한 세제·금융 지원 확대
 - (3) 중국산 미소 수입 관세 면제 제도 폐지
 - (4) 중국 국영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 참여 금지
 - (5) 틱톡, 위챗 등 모든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영업 중지
 - (6) 중국의 대미 첨단 기술 관련 투자 금지
 - (7) 미국 회계 감사 기준 미충족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폐지
 - (8) 미국 투자가의 중국 국채 매수 금지
 - (9) 의약품, 반도체, 핵심 광물, 군수 제품 등의 대중 의존도 축소
 - (10) 중국 학생 또는 연구원의 체류 비자 제한 또는 폐지 등

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
■ 자료원 | 워싱턴포스트([8.22](#)), No Trade is Free([6월](#)), 헤리티지 재단([4월](#))

□ **(수출통제) 하원 외교위, 美 산업안보국 기관 검토 보고서 발표**

- (개요) 외교위, 산업안보국(BIS) 검토 이후 제언 보고서 발표(12.4)
 - 화웨이 메이트 60 사건 이후 수출통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확산, 의회는 사후 대응 성격의 수출통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
 - (상세) 기관 검토 보고서는 BIS의 15가지 문제를 지목
 - 수출 허가 발급을 위한 기관의 의사결정 절차, 만성적인 자금 부족, 기본 및 신흥 기술 식별 실패 등을 언급
 - 허가 발급은 국가안보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, 국가안보 관련 모든 수출에 거부추정 원칙 적용을 요구
 - 레이먼드 상무장관의 '24년 BIS 예산 확충 신청과 관련, 마이클 맥콜 의장은 추가 자원 제공 이전에 개혁 의지를 피력할 것을 주문
- * BIS의 '23년 예산은 '22년 대비 35% 증가한 1.91억 달러, '24년 2.22억 달러 신청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(12.4), 인사이트트레이드(12.7)

□ **(탄소세) 美 의회, 청정경쟁법(Clean Competition Act) 재발의**

- (개요) 美 의회, 탄소국경세 담은 청정경쟁법(CCA) 재발의(12.6)
 - 상원 셸든 화이트하우스(Sheldon Whitehouse(D-RI))와 하원 수잔 델버넨(Suzan Delbenen(D-WA)) 의원은 기존 법안('22.6월) 재발의
- (상세) '25년부터 톤당 \$55 부과, 수입 업체 및 미국 내 제조업체 모두 해당
 - 미국 내 해당 산업 평균보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경우,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톤당 탄소 비용 부과(기존 발의 법안과 동일)

- 화석연료, 석유화학제품, 비료, 시멘트, 철강 및 알루미늄, 유리, 펄프 및 종이, 에탄올 등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1톤당 \$55를 부과하며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5%씩 추가 인상률 적용
 - * 환경보호기금, 시에라클럽, 시멘트·건축자재 기업 법안 지지 의사 표명
- 한편, 공화당 측은 '23.11월 해외오염 수수료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.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인사이드트레이드(12.6), ('22.6.9), 화이트하우스 의원실(12.6)

□ [철강] 美 철강 업계, 온실가스 배출 측정에 제품별 접근 방식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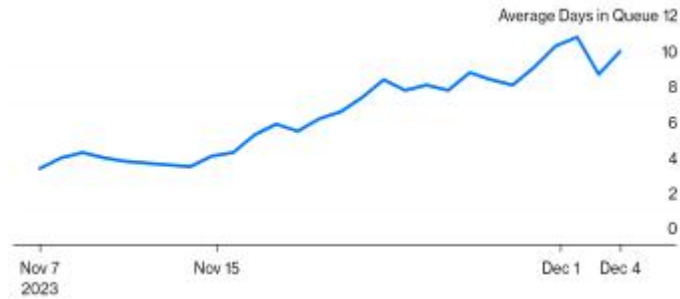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USITC, 철강·알루미늄 온실가스 배출 관련 청문회 개최(12.7)
 - USTR은 USITC에 미국산 철강·알루미늄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에 대해 '25.1월까지 조사해, 향후 관세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('23.6)
- (상세) 美 철강협회(AISI) 케빈 뎀시 대표가 참석해 업계 의견 대변
 - 뎀시 대표는 업계가 전기로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미국산 철강 1톤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평균의 절반인 점을 강조
 - '장강·평강 등 철강 제품 유형 및 그 하위 분류마다 배출 강도에 차이가 있어 관세 부과 시 제품별 접근 방식이 필수'라고 주장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폴리티코(12.7)

□ [공급망] 파나마 운하 수위 저하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전망

- (개요) 파나마 운하 지역 강우량이 36% 감소로 해운 정체 발생
 - 파나마 운하청(ACP)은 현재 선박의 평균 대기 시간을 12일로 발표했으며, 이는 11월 평균 4일 대비 약 200% 증가한 수치

<파나마 운하 선박 평균 대기 시간 증가 추이>



[자료: 파나마 운하청]

- (상세) 컨테이너 선적 차질 및 글로벌 무역 루트 병목현상 심화 전망
 - 일일 통과 허용 선박은 '24.2월까지 36척에서 18척으로 감소할 전망, 홀수* 제한 강화에 현재까지 평균 선적량 약 2,400TEU 감소
 - * 수면 아래에 잠긴 선체 깊이를 기존 50피트에서 44피트로 감량
 - 적체 현상으로 화주들은 해운 회사의 할증료*를 지불하거나 수에즈 운하 등의 대체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* Hapag-Lloyd는 1.1일부로 파나마 운하 통과 운송에 대해 TEU 당 130달러, Mediterranean Shipping은 12.15일부로 TEU 당 297달러 추가 요금 부과 예정
 - 곡물, 석유·가스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, 미국의 對 아시아 곡물 수출과 운하 통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6%, 37% 감소 기록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정연호
■ 자료원	블룸버그(12.5), Fortune(12.4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FDA Approves World's First Crispr Gene-Editing Drug (FDA, 세계 최초의 유전체 편집 약물 승인)</p> <p>미국,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겸상 적혈구 증후군 치료약 세계 최초로 승인. FDA의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유전자 편집 치료법이 속속들이 등장할 전망</p>
The Washington Post	<p>U.S. won't support U.N. ceasefire call; aid system in Gaza near collapse (미국, UN 휴전 결의 거부권 행사; 가자지구 구호 체계 “붕괴 직전”)</p> <p>미국은 지난 금요일 안보리의 인도적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(veto) 행사. 안보리 표결에 앞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가자의 사회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 호소</p>
The New York Times	<p>U.S. Job Growth Holds Up as Economy Gradually Cools (점차 냉각되는 경제 속, 미 노동시장의 지속적 강세)</p> <p>11월 미국은 199,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, 실업률은 3.7%로 감소. 전문가들은 경제가 침체국면과는 거리가 멀다고 진단. 경제 연락처에 대한 기대감 상승</p>
CNN	<p>The self-checkout reversal is growing (유인계산대로 회귀하는 기업들)</p> <p>기업들이 마케팅 효과 개선 및 절도 방지 제고 위해 유인계산대로 회귀.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무인계산대 운영기업의 매출 손실률은 4%에 육박.</p>
USA Today	<p>FDA approves gene therapy for sickle cell disease (FDA, 겸상 적혈구 증후군 대상 유전자 치료법 승인)</p> <p>금요일 FDA는 2개의 겸상 적혈구 증후군 유전자 치료법을 승인. 해당 치료법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시행될 것으로 보여. 가격은 약 최소 220만불로 보여</p>

* 미국 동부시간 12월 8일 16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: [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32	미국 연방정부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	2023.11월
US23-31	백악관 인공지능(AI)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	2023.11월
US23-30	2024년 미국 대선 전망,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	2023.10월
US23-29	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	2023.10월
US23-28	미국 정부의 대중 투자규제 동향 및 시사점	2023.10월
US23-27	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가시화 속 현지 반응 분석	2023.09월
US23-26	신규 회계연도 임박, 美 의회 예산안 입법 동향	2023.09월
US23-25	2022년 주요국 해외투자 동향(UNCTAD 보고서)	2023.09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: [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GMR23-026	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,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	2023.09월
US22-기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: [☞유튜브 KOI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미야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미더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